



도서관 자원으로서는 공공데이터의 가치



남영준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이용활성화전문위원회 위원장
namyj@cau.ac.kr

「도서관법」에서는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도서관 역할을 정의하고 있다. 즉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궁극적으로 현재와 미래 이용자만을 위한 것이고, 도서관에서 최적의 자원은 이용자에게 유익한 자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서관은 끊임없이 이용자 연구와 사회현상 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정보요구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한다. 왜냐하면 이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자원과 이용자가 방문하지 않는 도서관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교도서관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유의미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그 대학도서관 홈페이지에 전통적인 소장목록을 검색하는 메뉴와 함께 유명한 상업용 검색엔진을 통해 웹상에 존재하는 정보 자원을 열람 및 구매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또한 정보 자원으로서는 전통적인 인쇄형 책자 이외에 데

이터(data)라는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추가되었다. ‘데이터’라는 새로운 정보 자원에 대한 이용자 요구를 도서관이 수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서관 자료로서 데이터는 대부분 통계 데이터였지만 최근에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무선인터넷 환경의 확대로 인해 지도 제작에 필요한 지리데이터(geo data)도 매우 중요한 정보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국가운영계에서 파생된 공공데이터도 학술용 혹은 산업용으로 그 필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국가 통계데이터나 지리데이터도 큰 범주에서 국가운영계에서 파생된 공공데이터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3.0정책은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3년 10월 31일자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 이 법에서 ‘국민

“교육을 업으로 하는 교수로서 ‘도서관과 사서의 본연업무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 업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시점에서 사회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방법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라고 학생들에게 항상 주장한다.”

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중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년도 12월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포털(<http://www.data.go.kr>)이라는 대국민 서비스 채널을 마련하였다. 공공데이터포털은 과거에 국가지식포털을 확대·개편한 것으로써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 및 디브리리 정보 서비스’를 비롯한 도서관 관련 정보원도 상당수 등록되어 있다. 2014년 8월 현재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된 데이터의 유형과 개수는 OPEN-API 형태를 비롯하여 LOD, 그리드(GRID), RDF, 차트, 지도 등 총 10,003여 개이다. 이 가운데 OPEN-API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해당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채널이다. LOD는 Linked Open Data의 약자로서 공공데이터를 기계적으로 연결하기 용이한 개방형 데이터로 구축한 프로젝트명이고, 링크드 데이터는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데이터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구축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링크드 데이터의 구축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 개방된 링크드 데이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미상 차이는 유사하다. 이런 이유로 LOD와 링크드 데이터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그리드는 여러 개의 기관에서 생산하는 자원을 OPEN-API와 개방형 데이터 포맷으로 발행하여, 하나의 데이터로 연결할 수 있는 협업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채널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공공데이터 활용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유용한 공공데이터를 직접 제공

하는 새로운 데이터자원제공자가 되었다. 따라서 도서관계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다수의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를 LOD 형태로 변환하고, 정보제공채널을 OPEN-API로 변환하는 등 미래 이용자 요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단순한 원자료(raw data) 형식의 통계데이터를 비롯한 주요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수집과 LOD 형태와 같은 고품질 데이터로의 변환도 도서관의 일이 되었다. 또한 OPEN-API나 그리드와 같은 새로운 자원입수 채널의 발굴도 우리 도서관계의 새로운 임무가 되었다.

교육을 업으로 하는 교수로서 ‘도서관과 사서의 본연업무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 업무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이용자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시점에서 사회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방법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라고 학생들에게 항상 주장한다.

공공데이터는 도서관 분야와 무관하게 수행하는 정부시책 가운데 하나로 개방되었지만 그 시책 결과물은 도서관 입장에서 중요한 정보자원으로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데이터는 저작권이 해결된 자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 도서관 자원화하여도 아무런 문제도 없다. 정부에서 생산된 자료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신뢰성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 사서들은 늘 해오던 우수도서 사냥 실력을 십분 활용하여 유용한 공공데이터 사냥을 할 때가 되었다. 공공데이터 개방시대에도 역시 사서의 역할과 능력은 끝이 없다. ㉞